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9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15-21절

설교제목 : “떡 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다룰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수확된 보리의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립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고전15:20)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을 카운트 합니다.(레23:16) 일곱 안식이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카운트 하기 때문에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의 카운트가 중요한 것은 신약에 성령이 오심이 오순절 사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이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삼 개월이 지나서입니다.(출19:1)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삼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수여된 날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율법의 수여와 언약을 통해서 새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핵심이 율법을 마음에 두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 의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성령강림을 결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행2:1-3) 그런데 성령강림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행2:4)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1장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창11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의 힘으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없이 살자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가 언어를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언어의 혼잡이 언어의 통일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역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행2:11)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사건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바벨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까? 베드로는 성령강림의 사건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행2:16-18) 요엘의 예언의 핵심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단순히 육체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같은 제 2의 창조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대리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오늘 칠칠절이 담고 있습니다.(레23:17) 오순절에는 새 소제를 드립니다. 오순절 소제의 특징이 뭐니까? 누룩이 들어간 소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2장의 일반소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소제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떡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 두 개입니까?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칠칠절의 유교병은 마치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왕성하게 커져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단어가 둘이라는 숫자입니다. 계11:3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합니다.(계11:4)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11:3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칠칠절에서 말하는 두 개의 유교병이 갖는 의미가 됩니다. 칠칠절의 절기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힘쓰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흠어진 교회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초실절은 어떤 절기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3:10)
- 2) 오순절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누룩이 들어가 두 개의 떡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3:17)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더불어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충만할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